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06월 0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5호

살아서 '이고득락', 죽어서 '왕생득락'의 길 열리다

5월 24일, 부산 정각사 득락전 헌공가지 불사 봉행



“불법승” 외치면, 여러분도 함께 큰 소리로 불법승을 외쳐주시요. 불! 법! 승!” 오색실로 곱게 단장하고, 하얀 베일로 신비하게 가려져 있던 아미타 부처님이 연화미소를 보내시며 좌중 앞에 그 위용을 드러내셨다. 왼쪽에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오른쪽에 지장보살님도 함께 나타셨다. 힘찬 박

수와 환호 속에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오셨다. 넘치는 환희심을 예를 갖추 함장으로 경배하고, 통리원장 인선 정사의 비밀가지 의례를 봉행하며 다시 마음을 모았다. 총지중 대표 말법도량 부산 정각사(주교: 도현 정사)는 지난 5월 24일 12시 ‘득락전 아미타삼존불 헌공가지 불사’를 봉행했다.

지난해 8월 20일부터 조성이 들어간 이래 10개월 만이다. 범회는 삼존불 제막, 비밀가지의례, 헌화 및 훈향정공, 불공, 경과보고, 법어, 봉축사, 발원문, 축사, 감사패 증정과 법석에서는 정각사 단월회의 발백 연주, 만다라합창단의 음성공양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

종령 법공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득락전의 의미를 설명하며, 원정 종조의 가르침과 유훈을 알렸다. 아울러 “법회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각 가정마다 살아가는 이고득락, 죽어서는 왕생득락하는 법신불의 가지 신력 받으시기를 지심기원 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면으로 이어짐)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재(入齋) 법어

총기 48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의 입재(入齋)에 앞서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의 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우리 총지중의 불공법은 기간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단기(短期)불공이요, 두 번째는 중기(中期)불공 마지막으로 장기(長期)불공입니다.

단기불공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조식불공과 매주 일요일 공식법회로 봉행되는 자성일 불공을 단기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기불공은 매월 초 7일간 정진하는 월초불공입니다. 장기불공은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올리는 49일 불공입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상반기 49일 불공(2월18~4월8일)이 밀교 4종수법, 즉 식재(息災), 증익(增益), 경애(敬愛), 조복(調伏)법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의 염원 수호국계주진언, 옴흠야호사 염송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창종과 동시에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의 염원으로 ‘나라를 위한 불공’을 제정하시어 상, 하반기 49일 불공기간 동안 진행하는 ‘진호국가 불공법’을 공포하셨습니다. 밀교 특유의 수호국계주진언 즉, 옴흠야호사를 염송 정진함으로써 다생 겁에 걸쳐 누적(累積)된 은혜의 빛, 은혜(恩債)를 갚는 매우 중대한 불공입니다.

또한 우리 총지중은 생활불교 종단으로, 창종 이념의 본령(本領)이기도 한 시대 은혜, 즉 부모와 나라, 중생과 삼보의 은혜를 갚는 불공의 일환으로 삼고 있어, 시대 은혜에 보은(報恩)하는 매우 중대한 실천불공이기도 합니다.

중 생활 경제 향상과 자녀 성공을 위한 증익법(增益法) 불공이라면, 하반기 49일 불공(5월 28일~7월 15일)은 식재법(息災法) 불공으로서 나라의 은혜를 갚는 진호국가(鎮護國家) 국태민안 불공과 더불어, 선망부모 조상의 영식을 불공으로 천도(薦度)함으로써 현세부모와 다생 부모 은혜를 갚는 매우 중요한 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향하는 7월 15일을 해탈절(解脫節)이라 명명(命名)하여 호국안민법회로 더욱 원만한 회향(廻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각성하시어 49일간 옴흠야호사 염송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총기 48년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입재

5월 28일부터 전국 사원서 일제히 수행정진

불교총지중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5월 28일 입재식을 봉행하고, 7월 15일까지 수행정진에 들어갔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총지중 교세발전, 부국강병 국태민안, 조국 평화통일, 재난불생 산업발전 등으로 나라와 일체중생의 재난소멸, 소원성취를 서원하며 불공을 올린다. 수호국계주경법에 의한 진언 옴흠야호사를 49일

간 염송정진 한다. 종령 법공 예하는 입재 법문을 통해 “나라의 은혜를 갚는 진호국가 국태민안 불공과 선망부모 조상의 영식을 불공으로 천도함으로써 현세 부모와 다생 부모 은혜를 갚는 매우 중요한 불공이다.”며 강조하고, “호국안민법회로 원만 회향할 때까지 용맹정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9일 불공 중에도 6월 월초불공은 예정대로 정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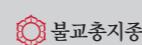


알림

원불 대정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

일시
총기 48년 6월 25일(화)
오후 2시

장소
포항 수인사



종/조/법/어

탐욕을 부리고 교만과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이 모든 번뇌가 된다

지면안내

2면 정각사 득락전 6면 삼일사 탐방 7면 기획-부처님의 자식교육 11면 통신원소식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의 공덕으로 국태민안과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고, 교도가정에 일체재난 소멸과 조상영식, 선망부모의 추선공덕을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48년 5월 28일 ~ 7월 15일, 매일 오전 10시

장소 불교총지중 전국 사원

우리 곁에 오신 아미타부처님

사진으로 보는 정각사 특拉克전 헌공가지 불사 '이모저모'



1 불사를 앞두고 5월 3일(금) 14시 아미타부처님을 비롯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의 봉안식이 열리다. 교도들이 정성껏 써내려간 옴마니반메홀 사경집과 총지 염주, 종조 법설집,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이 복장물로 함께 모셔지다.



2 불사는 이웃의 축하 화환과 꽃 보다 밝은 교도들의 신심과 정성으로 맑고 청정한 날씨 속에 원만히 이뤄지다. 사원 곳곳에는 부처님을 맞이하는 교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복으로 단정한 안내 교도의 미소가 빛났다.



3 "사회자가 '불법승'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도 함께 큰소리로 불법승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막과 동시에 다 함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승! 카운트다운에 맞춰 부처님이 오시다.



4 (원) 제막식이 시작되기 전 베일에 싸여있는 아미타부처님. (오) 제막이 되면서 위용을 나타내고 계시는 부처님



5 천태종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진광 정사, 진여원 정경 국원, 이진복 국회의원, 탁상달 동해중 교장, 김우룡 동래 구청장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하다. 세운 스님께서 내빈 대표로 인사말씀을 전하시다.



6 바라옵건대, 사바세계에 아미타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원하오니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대원을 이루시사 중생들의 일체 괴로움과 고통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정각사 정인숙 신정회 회장이 대표하여 발원문을 낭독하다.



7 금번 불사는 연리지 불교공에서 이남형 대표가 책임을 맡다. "귀하는 본 종단의 정각사 특拉克전 조성불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주셨기에 그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총기 48년 5월 24일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8 이날 불사는 특拉克전과 3층 서원당에서 동시 진행이 되다. 기로스승과 현직스승 교도 400여 명이 가득 메운 3층 서원당. 불사가 생중계 되면서,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가슴으로 맞이하다.

〈1면에서 이어짐〉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봉축사에서 "모든 종도들과 부산시 불자들이 조상영식 왕생성불과 소원성취, 재난불생을 염원하는 성스러운 기도도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각사가 종단 대표 사원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밀교 성지의 모범도량으로 우뚝 서는데 교도들이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각사 주교 도현 정사는 "특拉克전 헌공가지불사에 동참해 준 모든 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불사 동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세세생생 가득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 세운 스님은 부산지

역 승가를 대표한 축사에서 "부처님의 일 불제자로 모두 화합하고 불국도를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부산불교 화합을 위해 더욱 열정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각사 2층에 조성된 특拉克전은 약 10억여 원의 불사비로 조성되었으며, 300㎡ 규모로 2층 내부 전체 공간이 활용되었다. 입구 쪽에서 수미단까지 일직선상에 중간중간 다섯 곳의 우물반자를 두어 점진적으로 격이 높아지며 승화되는 부처님의 세계로 구성했다. 정면에는 아미타부처를 주불로 봉안했으며 좌우 통로 앞에는 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배치해 어디서든 예불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1,114 원불을 함께 안치했다. 삼존불에는 모두 감실을 구성 배치했으며, 밀교의 만다라 세계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법당 천장인 단집 내부에는 극락세계의 연지, 봉황 구름 등을 조각해 극락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총지종은 이날 특拉克전 조성을 맡은 연리지 공예 이남형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진광 정사, 진여원 정경 국원, 이진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탁상달 동해중 교장, 김우룡 동래 구청장 등 사부대중 800여명이 동참했다.

<정각사=박재원 기자>

특拉克전 조성과 아미타 삼존불 봉안의 의미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야 한다."

불교총지종은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과 '시대에 따라 교화방편이 달라야 한다.'는 재생의세의 유훈을 좇아 종단 발전을 추진해 왔다. 종단의 발전이란 외형과 내실, 교상과 사상의 계승발전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수

데, 특拉克전과 아미타삼존의 봉안 가지 불사도 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대개 전통사찰에서는 아미타불을 모신 곳을 '극락전'이나 '미타전'이라고 한다. 불교총지종은 이를 '특拉克전'이라고 하는데,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이르는 것이 완전한 열반이므로, '고

통이 있는 이생을 떠나 즐거움만이 있는 저 세상으로 가는 '이교득락(離苦得樂)'의 세계이므로 특拉克전이라 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살아가는 '이교득락' 죽어서는 '왕생'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고 하는데,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이르는 것이 완전한 열반이므로, '고통이 있는 이생을 떠나 즐거움만이 있

<종령 법어 정리=박재원 기자>

불교총지종 특拉克전 사원 현황

사원명	주교	특拉克전 조성일	연락처
포항 수인사	법일 정사	총기37년 11월27일	054)247-7613
부산 성화사	금강륜 전수	총기37년 12월11일	051)254-5134
진주 화음사	우인 정사	총기40년 11월24일	055)755-4697
대구 제석사	시정 정사	총기42년 12월11일	053)743-9812
서울 실지사	덕광 정사	총기43년 10월17일	02)983-1492
대전 만보사	안성 정사	총기43년 11월27일	042)255-7919
밀양 밀행사	행원심 전수	총기44년 11월16일	055)354-3387
서울 관성사	인선 정사	총기46년 10월17일	02)736-0950
대구 개천사	법등 정사	총기46년 11월21일	053)425-7910
부산 정각사	도현 정사	총기48년 5월24일	051)552-7901

<자료제공=통리원 총무부>

宗祖法說集

즉신성불의 길잡이 종조법설집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의
주옥같은 생활불교 실천밀교의 진실법설

진리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은 진리를 구한다.
믿음이 높으면 진리는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믿음은 공덕을 생기게 하고
공덕은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느니라.

-제3장 잠언편 p.228 -

불교총지종 통리원 집행부 진각종 예방 진각문화전승원서 회성 통리원장과 환담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위시한 제19대 집행부는 지난 4월 26일 대한불교 진각종을 방문하고, 진각종 회성 통리원장 및 진각종 집행부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또 진각문화전승원의 밀교이레 재현관, 전시관, 밀교문화콘텐츠센터 등을 참관, 밀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같이했다.

제2기 감수위원회 3차 회의 개최 교구별 통신원 회의 추진 등 안건

제2기 감수위원회 정기회의가 지난 5월 21일 통리원 종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개최된 불교총지종 통신원 워크숍을 평가하고, 5월 발간된 종보 및 위드드라마에 대한 합평회를 마쳤다. 이와 함께 총지종 50년 사 발간을 대비하여, 기사 기획 및 신설 연재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총지종 탄생 배경 및 역사 △역대 스승 인물전 △사진으로 보는 총지종 역사 △총지종 소의 경전 쉽게 읽기 등의 새로운 의건이 제시되었으며, 추후 필자가 선정됨에 따라 진행기로 결의했다. 또 전국 통신원들의 활동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소식 확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

구별 통신원 회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지종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관지를 넘어 총지종을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제호를 총지신문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또 전국 통신원들의 활동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소식 확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교구별 통신원 회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지난 4월 16일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제2기 감수위원으로 정원전수(간강 건화사)를 위촉하였다. 이로써 감수위원은 총 8명이 되었다.



2019년도 제 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개최 불화, 조각 5개 분야, 불교문화 융성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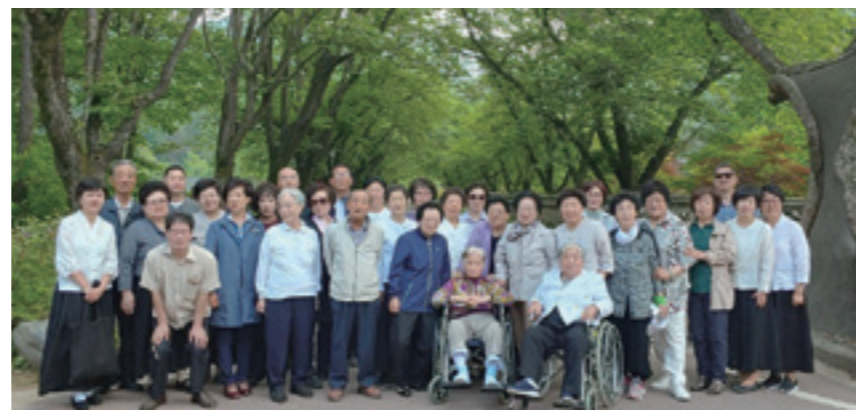
천태종(총무원장:문덕 스님)은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는 예술 분야 저변 확대를 불교문화 융성을 발원하고, 참신한 예술가들을 발굴하고자 실시된다. 공모대전은 불화(전통, 현대), 조각, 공예, 서예·문인화, 민화 등 5개 분야에서 작품을 모집한다. 접수는 오는 8월 28일~2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관문사로 하면 된다. 불화와 조각 분야는 1인당 2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공예, 서예·문인화, 민화 분야는 1인당 3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작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원과 상장·상패

를 수여한다.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상장·상패, 부문별 우수상(분야별 1명) 5명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상패, 가작(분야별 1명) 5명에게는 각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장려상(분야별 2명) 10명에게는 각각 상금 30만원과 상장, 특선에는 상장·상품, 입선에는 상장을 전달한다. 수상작 전시회는 10월 23~28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리며,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내 진행된다. 전시회에는 중국 감소성불교협회 회장이자 서예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심징 스님의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02)723-1559

스승의 날 맞아 전국서 감사의 물결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불교총지종 각 교구에서는 교도들이 종단 스승을 모시고 함께하는 따뜻한 감사의 행사가 열렸다. 신정회 서울경인지회(회장: 김은숙)는 5월 13일 종령 범공 예하, 통리원장 인선 정사 등 서울, 경인교구 스승들을 초대해 점심 공양을 올리고, 스승들께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헌화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로스승과 현직 스승 및 교도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교구(교구장: 범상 정사)도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14일 교구 기로스승 10명을 포함하여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 운문사를 관불하고, 도자기 공방을



방문했다. 도자기 공방은 기로스승 우수 정사의 자제가 운영하는 공방으로 동참자들에게 도자기 선물을 했다. 또 대구경북 신정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 공양을 올리며, 스승들의 건강과 안녕을 서원했다. 부산경남교구(교구장: 정인화 전수)는 교구회의를 스승의 날에 맞춰 이틀 뒤인 5월 17일에 기로스승을 초청해 함께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교도들 없이 기로스승 5명과 현직스승 20명이 참석하여, 모처럼 만의 사제 간 우의를 다졌다. 정각사에서 다함께 기장으로 출발하여, 점심공양을 마친 후 울산으로 이동하여, 간절곶 일대 관불을 나눴다.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 사퇴 표명 건강상 이유, "다시 수행하고 정진할 것"

회정 정사는 5월 24일 진각종 기관지 밀교신문 공고를 통해 사퇴의 뜻을 전했다. 그는 "내려놓습니다. 교화의 무게를 내려놓으며 종사(宗事)의 부담을 덜어낸다"며, "작금 종단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법문(法門)을 다스리기에는 주어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총인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정 정사는 "참회공부 실천문제는 종지와 같다고 하신 종조님의 말씀을 좇아서 다시 수행하고 정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각종단의 발전을 위해 서원하고 정진해온 스승님들과 신교도들이 진언행자로서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종단을 이뤘던 진각의 끈기를 이어주시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수인사, 법천사 49재 봉행

5월 16일 자행정 전수 부친 / 5월 26일, 덕현 전수 부친

포항 수인사(주교:법일 정사)에서는 지난 3월 29일 열반하신 자행정 전수 부친 고 신한석님의 49재가 5월 16일 봉행되었다. 또, 성남 법천사(주교:법경 정사)에서는 지난 4월 8일 열반하신 덕현 전수 부친 고 이건우님의 49재가 5월 26일 봉행되었다. 각각의 49재 법회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전국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석하여, 열반하신 분들의 극락왕생을 서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마음 캠프, 7월 29일부터 2박 3일

경로법회, 9월 25일~26일, 청송에서

"한마음 캠프(참된 나를 찾는 여행)"가 오는 7월 29일부터 2박 3일 간 진행된다. 모집은 오는 7월 25일까지이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경로 효친 사상의 실현과 교도 평생 복지의 구현을 위한 제13회 경로법회를 오는 9월 25일부터 1박 2일간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전국의 65세 이상 모든 총지교도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및 행사접수처, 또는 02)552-1080~3>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참된 나를 찾는 여행

제6회
청소년 바른인성
형성 프로그램

모집기간 기간 중 1박2일 선택

2019. 4.20-7.25

모집대상

- 초등학생 (3학년이상),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선착순)
- 팀으로 참가(4-8명)

여행계획시 필수조건

여행장소는 자유롭게 선정하되, 아래와 같은 일정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명상시간
- 2 인생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스님, 향토사학자, 지역명사 등)과의 만남의 시간
- 3 멘토와의 대화 시간

신청서 접수 및 참가문의

각 사원 주교 및 행사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
✉ admin@chongji.or.kr

주최 불교총지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① 효친(孝親)편 _ 수행(修行)

① 아버지에 효순하면 자식도 또한 효순(孝純)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겠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의미는 생명의 근원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으로 인연을 맺는 것은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인연의 줄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덕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 도리는 효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성현들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효친을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잘 못하면 자손에게 미칩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순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효순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선업을 지으면 삼대에 미친다는 말은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효순은 심덕(心德)의 대원(大元)이요, 백행의 근본이며, 백행의 으뜸이 되는 것이니라.

본래 마음 바탕의 으뜸은 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덕은 마음 쓰는데서 나오는 덕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효순은 온갖 행실의 근본이며,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은 나무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로 나무가 지탱을 합니다. 모든 부모가 뿌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할지며, 어머니는 땅과 같이 공경하여라. 너희 자손 모범되어 창성해지고, 영원하게 가보로서 전해 가리라.

'아버지는 하늘처럼, 어머니는 땅과 같이'라는 의미는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음양의 조화 즉, 땅(음)과 하늘(양)의 조화를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고 바람이 불고 땅은 기쁨져야 오곡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역시 부모 간에 조화로워야 가정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은 높고, 넓고, 광대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면, 자손 또한 그 부모를 배워 자자손손 효친하게 됩니다.

③ 형상 없는 이불(理佛)을 믿고 깨닫는데 육체에 병이 없고, 부모조상의 영식을 천도(薦度)하는데 현재 사업과 자손이 잘되며,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순하는데 이어가는 미래 자손들의 효순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중생은 즉 우리는 불성이 없기 때문에, 형상이

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형상이 없는 것이 형상의 근본일 수 있습니다. 뿌리에 비유를 하면 보이지 않는 조상들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또 내가 하는 모습이 자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 인연으로 자식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자식들의 허물을 보면 반드시 부모가 원인입니다. 모든 것은 얽혀 있으므로, 나부터 이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원망하면 자식도 부모를

인간의 기본 도리는 '효친'에서 출발 '예법' 형식을 통해 '효' 의미 가르침

없는 진리의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깨닫는 마음은 청정하고 바른 생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신이 반듯하면 육체 또한 건강하게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영식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큰 효도이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공덕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회향으로서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자신이 힘들어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릴 줄 아는 보살이 이상적인 불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하기에 내가 쌓은 공덕으로 내 생애 바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손이 잘되는 것입니다.

④ 아버지는 허물의 근본이 되고, 아들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자식들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라. 인이 없으면 과가 없는 것이니, 내가 부모에게 지은 허물을 누워치는데 효순하지 않는 자녀들의 허물이 없어지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지은 허물을 깨쳐서 참회하는데 며

원망합니다. 참회하고 원인을 찾고 그 인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효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 계시면 부자이고, 안 계시면 가난하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최종에 불효만큼 큰 게 없다고도 합니다.

⑤ 조상제사는 무슨 뜻으로 받든가,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효순하는 근본을 굳게 세우려고 행사한다.

유교에서도 어른이 돌아가시면 3년 상을 지냅니다. 공자는 3년이라는 기간은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제 몸처럼 돌보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와 같이 효순의 도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형식 같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버는 빈껍데기부터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이 생깁니다. 형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과연 고(苦)인가?

부처님, 고통과 고통의 소멸만을 설하심 고통 대하는 방식 달라지면 '고가 아니다'

불교는 맨 날 고통만 말하는 종교인가 하고 불평하는 수가 있다. 불교에 입문해 제일 먼저 접하는 사성제와 팔정도 같은 교리에서도 고통(苦)이 초점이 된다. 또 사법인에서 일체개고라니까 생로병사 모두가 다 고통이요 '인생=고'라는 등식이 마구잡이식으로 도배하기도 한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털떨어진 범부나 외도로 취급받기 일췌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고통과 고통의 소멸만을 말씀하셨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만큼 불교 공부에 있어 고통의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소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 고통을 제대로 파악할 때 소멸의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고통의 완전한 소멸 즉 열반(涅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이들의 태도였다. 불교가 아름답고 즐거운 측면은 안보고 반대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그래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가 아니냐 하는 인식 말이다. 고통의 완전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막 입문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선입견만 강하게 남겨 줬던 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 고통이라 가르치셨다. 태어남(生)은 죽음(死)의 원인이 되므로 분명히 고통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생도 사도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어떤 필연적인 현상일 뿐이며,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관건이다. 여기서 필연이라는 것과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라 하지 않으셨고 극복하도록 이끌었다.

생로병사를 고통이라 가르칠 때는 막연히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태도를 지적한 측면이 있다. 생로병사를 단순한 수용이나 배격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게 살며 품위 있게 늙어 가고 질병과 죽음에도 의연히 대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니게 된다.

우리는 단순히 '생로병사=고'라는 등식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그러한 등식을 인지하고는

'생로병사=고'라는 새로운 등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현대사회에 들어 생로병사에 대한 인식은 차츰 바뀌고 있다. 잘 살아 보자는 웰빙부터 잘 떠나자는 웰다잉이 제시되고, 특히 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노년정신의학 박사인 마크 아그로니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시각은 성공적인 노화, 긍정적인 노화, 창조적 노화로 진화해 왔다고 한다. 성공적인 노화는 질환과 장애를 겪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에 실패할 경우 그 이후 나이 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보다 진전된 긍정적인 노화는 노년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아 나이가 들며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위 두 개념은 노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지 노화 자체가 장점이나 해결책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창조적 노화는 노화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해 낸다. 즉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들에 주목한다.

1941년 노년의 화가 마티스는 시름시름 앓다가 거의 의식을 잃어 이른바 '연령감'에 도달했다. 그런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해 다시 붓을 잡고 마침내 특유의 화법을 창안해냈다. 친구들과 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기운을 얻은 그는 "떠들썩한 농담, 시시콜콜한 이야기, 장난이 가득한 편지들 덕분에 정을 느끼고 노년의 병약함이나 외로움, 두려움 따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그것은 단순한 고가 아니게 된다. 금강경식 논리라면 고가 아니라 그 이름이 고가 되는 셈이다. 중요한 점은 고가 행복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봉래(BBS불교방송 보도국 선임기자)

내 마음의 등불 3

정각사 도신 정사편

비록 백년을 산다 해도

- 1. 비록 백 년을 산다 해도 바른 것을 멀리하고 게 지치지 아니하면, 하루 동안 게 지키고, 바른 뜻과 선정으로 사는 것만 못하리라.
- 2. 비록 백 년을 산다 해도 샅된 일과 거짓으로 지혜 없이 사는 것은, 하루라도 부지런히 바른 지혜 배우면서 사는 것만 못하리라.
- 3. 비록 백 년을 산다해도 해대하고 방종하여 정진 않고 사는 것은, 하루라도 부지런히 노력하며 정진하고 사는 것만 못하리라.
- 4. 비록 백 년을 산다 해도 일에 대한 성패 이해 모르고서 사는 것은, 하루라도 선후 이치 바른 도리를 미리 알고 사는 것만 못하리라.
- 5. 비록 백 년을 산다 해도 죽을 없는 감로도 모르고서 사는 것은, 하루 동안 열반경의 감로맛을 알고 사는 것보다 못하리라.
- 6. 비록 백 년을 산다 해도 가장 높은 큰 이치를 모르고서 사는 것은, 깊은 법을 배우면서 사는 것만 못하리라.

-법구경(法句經), 불교총론 P281-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정각사 도신 정사님은 다음 주자로서 주교 현일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초록 어린이집

꿈과 사랑이 가득한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초록 어린이집

아이들의 웃음, 꿈과 사랑이 가득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초록 어린이집입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5 세곡리엔파트 관리동

교육상담 02-445-2326



밀교경전 읽기 24

원당정사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육자대명다라니의 공덕은 지송의 공덕과 더불어 서사의 공덕에 대해서도 설하고 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육자대명다라니를 서사한다면, 팔만 사천의 법장을 서사한 것과 똑같이 다름이 없고, 만약 어떤 사람이 천상의 금과 보배로 서 미진수 여래응정등각의 형상을 만들고, 이와 같은 여래에게 하루 동안 공경 찬탄 공양하여 얻는 과보는, 이 육자대명다라니 중의 한 글자를 서사하여 얻는 과보공덕보다 못하니, 불가사의 해탈에 잘 머물기 때문이니라. 라고 육자대명다라니를 서사하는 공덕이 무량함을 설하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그 때에 마땅히 육자대명 총지문을 증득하여 라고 하여 다라니를 총지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육자대명다라니는 무수한 의미와 무량한 공덕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라니는 법(Dharma), 바로 그것이기때 법이 갖는 모든 덕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자대명다라니를 한자 한자 서사하는 공덕이 팔만사천의 법장을 서사한 공덕과 다름이 없으며, 육자대명다라니를 한자 한자 서사하는 공덕이 여래에게 드리는 가장 수승한 공경 찬탄 공양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육자대명다라니의 서사 공덕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육자대명다라니와 함께 준제다라니에 대해서도 함께 설하고 있다. 제계장보살이 바라나대성의 한 법사에게서 육자대명다라니를 얻고 나서 석가여래께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정례를 드리자, 이때에 칠십 칠 구지의 여래응정등각께서 모두 와서 보이셨는데, 그 모든 여래께서는 모두 함께 다라니를 말씀하시되,

나무 싹다남 삼막삼못다 구치남 단야타 옴 지래주 레 준제 사바하. 라고 육자대명다라니와 함께 준제다라니를 설하신다. 그리고 칠십칠구지 여래응정등각

명다라니를 염송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육자대명다라니와 준제다라니의 공덕이 상승적으로 나타남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육자대명다라니에 따른 규범상의 맥락 속에 준제다라니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육자대명다라니를 설할 때 77구지 여래께서 와서 함께 준제다라니를 설한다는 의미는 육자대명다라니에 대한 상승작용의 전언으로서 준제다라니를 설하는 것이다.

준제다라니를 설한 다른 경전을 살펴보면 『불설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에서,

여래에게 드리는 가장 수승한 찬탄 공양

께서 이 다라니를 설할 때에, 관자재보살의 모공에서 여러 가지 상서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칠십칠구지의 여래응정등각께서 이 다라니를 말씀하실 때에, 저 관자재보살의 몸에 한 털구멍이 있으니 이름이 일광명이라 하였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백 천만구지 나유다의 보살들이 있고, 그 일광명이라는 모공 안에는 또 일만 이전의 금신이 있으며, -중략- 또 무수한 백 천만의 금보로 장엄한 누각이 있고, 그 위에는 백 천의 의복과 진주로 된 영락이 걸려 있으며, 그 누각 안에는 미묘한 여의보주가 있어서, 그 모든 보살 마하살에게 필요한 일체의 자구를 공급하게 된다. 보살들은 그 누각 안으로 들어가서 육자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대성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사유하고 관찰하시어 가없이 여기시어, 과거 칠구지준 제여래불모다라니를 설하시었다. 라고 설하였으며, 『불설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경』에서는, 이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사유하여 관찰하시고 가없이 여기시어, 이 칠구지불모심다라니를 말씀하시었다. 라고 준제다라니를 설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명의료 15

법상정사

웰빙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인품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웰빙은 육체적인 건강함 보다 정신적인 풍요와 여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자함과 포근함이 묻어나는 한, 그리하여 사랑과 자비의 미덕으로 넘쳐나는 한, 노년 노후는 일빙(심심)을 흑사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웰빙의 시기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만으로는 웰빙이 될 수 없다. 정신과 인품이 무르익어가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최고봉이자 웰빙의 최적기다. 노년의 녹색지수는 무한대다. 노년의 삶은 강물이 흐르듯 차분하며, 생각은 달관하듯 관대하다. 소탈한 식사가 천하의 맛이며, 세상을 온몸으로 감싼다.

노년의 삶은 자연과 하나다. 그래서 노년은 청춘보다 꽃보다 푸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은 노년은 삭막하고 고독한 시기로 생각한다. 절망과 슬픔을 떠올린다.

사실 젊음을 구가하던 때와 비교하면 노년의 외모는 형편없다. 삼단 복부, 이중턱, 구부정해지는 허리 등. 그리고 흰머리, 빛나는 대머리, 또 거칠고 늘어진 피부, 자꾸 자꾸 처지는 눈꺼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을 앞에 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나눠 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데 세상사 애꿎어 실생활에서 만나는 노인들은 대부분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고집이 세고 인색하고 마음이 좁은 노인들을 더 자주 만난다. 왜 그런가? 노년의 그런 추함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과 용서, 자비와 보시의 삶에 인색했거나 은혜의 삶을 잠시 망각했기 때문이다. 노년은 용서와 배려하는 시기이다. 용서와 배려의 근간은

웰빙(well-being)

사랑과 배려로 충만한 노년 맞이해야

풍요와 경륜으로 쌓아올린 덕이 있기 때문이다.

노년의 주름살 속에 아름답게 풍겨나는 인자스러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쌓이며 승화되는 화석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온 노인은 이렇듯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지혜가 풍부하고 마음이 인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자비와 사랑이다. 사랑과 자비만이 인생을 구제하는 희망이다. 사랑과 용서, 자비와 보시로 충만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웰빙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자. 웰빙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인품이 건강해야 함도 잊지 말자!

왕불심 초교리학



도현 정사 인간은 사회적 동물

1920년 인도의 서남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한 목사가 늑대에게 길러진 여자아이 두 명을 발견했다. 그 중 작은 아이는 발견 당시 일곱 살쯤 되었는데 이름을 카밀라라고 지었으며 보호시설에서 보살폈다. 카밀라는 네발로 기어 다니며 옷 입을 것을 싫어해 입혀주면 모두 찢어놓기 일수였다. 낮에는 어두운 곳에서 잠만 자고 밤이 깊으면 나와서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숲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후각이 발달하여 냄새로 음식을 찾았으며 고기는 날것으로 반드시 바닥에 던져 주어야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먹었다. 카밀라는 연 구팀에 의해 4년 동안 고작 6개의 단어를 배우는데 그쳤다고 한다. 발견 6년 후야 겨우 직접보행을 하였고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카

어떤 수행자를 태운 배가 난파되어 그 수행자는 혼자 무인도에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는 혼자 남은 그 무인도에서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한의 경지 즉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렀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인도, 혼자 밖에 없는 무인도에서 말이다.

道, 대상에 대한 생각, 행동의 바른 가르침 지식은 오랜 축적된 경험 통해 쌓인 결과물

세상의 모든 道는 인간세계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착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존재하는 사람에게 착하고 악하고의 의미는 없다. 착하고 악하고는 대상이 있어야 실행되는 행동이나 그 밖의 말 혹은 생각의 결과인데 혼자 밖에 없는 무인도에서는 대상의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인 가족 속에서 존재하게 되고 성장과 함께 더 확대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사회 속으로 들어간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친구, 학교, 회사 그 외의 여러 사회 집단속에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집단속에서 태어나 집단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비록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밀라의 지적 수준은 서너 살의 유아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는 사회가 인간의 심리나 지적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을 통해 쌓인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집단화된 사회 속에 있을 때만 습득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일정한 사회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혹은 집단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개인의 고유한 인간적인 특성도 형성되지 않는다. 인간의 인식은 객관적인 외부 환경과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발달 한다. 만약 어렸을 때 이와 같은 조건들을 상실하면 인류 고유의 습성이나 지성, 재능, 감성 등이 전혀 발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회생활은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체와 신경계통 대내는 유전이 가능하지만 사유와 사회성은 유전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발달단계에서 사회와 격리될 경우 늑대소년처럼 영원히 인간의 사회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그때 그 시절

<p>전국 정사 총회 총기 21년(1992년) 5월 19일</p> <p>개천사에서 전국 정사 총회 개최</p>	<p>통일전망대방문 총기 21년(1992년) 6월 25일</p> <p>주최 : 육군본부, 불교계 지도자 초청 참석 : 백월사 사홍화 주교 만보사 총지화 주교 참석</p>	<p>군 불교 진흥회 특별법회 총기 23년(1994년) 6월 23일</p> <p>장소 : 국방부 국방회관 참석 : 통리원장 효강, 총무부장 원봉, 사무국장 지성 정사 참석</p>	<p>사원명 백월사(白月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사원명 : 법장서원당(法藏誓願堂) · 개설일자 : 총기 5년(1976) 6월 25일 · 사원 개명일자 : 총기 9년(1980) 10월 16일 · 사원재건축일자 : 총기 33년(2004) 3월 17일 (대전시 서구 도마동 171-17번지)
<p>삼동백화점 붕괴 구호물품 전달 총기 24년(1995년) 6월 29일</p> <p>사고일시 : 1995. 6. 29. 오후 5시 55분 피해정도 : 사망 501명, 부상 937명 구호물품전달 : 효강, 법공, 지성정사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p>	<p>총지중 홈페이지 개설 총기 27년(1998년) 6월 25일</p> <p>총지중 홈페이지 인터넷 개설 작업 계약</p>	<p>전국 신정회 중앙회 제 1회 모임 총기 30년(2001년) 6월 12일</p> <p>참석 : 각 사원 신정회 회장 및 임원 10명 참석 장소 : 개천사</p>	



사/원/탐/방

가장 밀법도량다운 이름의

삼밀사

주교: 묘홍 전수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전화: (051)416-9835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의 수행도량

설움의 영도와 삼밀사의 시작

삼밀사(三密寺)(주교:묘홍 전수)는 부산 영도에 있다. 행정구역상 정확한 표현은 '영도구'이지만 영도구 보다는 '영도다리'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섬, '영도'가 웬지 익숙하다. 6·25 전쟁을 전후 해서 수많은 피란민들이 임시 수도인 부산에 몰려들면서 방향의 설움을 대변하는 장소가 되어서 일까. 살기 위하여 남쪽 피난지로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영도다리'는 "헤어지면 부산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새로운 만남과 희망의 장소가 되기도 했고, 한편 고달픈 삶에 지쳐 희망 줄을 놓아 버린 사람들과 전쟁 통해 가족을 다 잃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몸을 던졌던 눈물의 난간이 되기도 했다. 그나마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어루만져 준 곳이 아마도 부처님 사원이었던 것 같다. 삼밀사도 일찍이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 정각사에 계시던 의강 대법사님이 주교로 오시며, 밀법도량의 문을 열었다. 총기 10년(1981년) 9월25일이다.

삼밀사에 가려면 큰 길에서 큰 숨을 한

번 쉬고 출발해야 한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어디인지 모르고 정처 없이 올라오다 삼밀사를 마주했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단숨에 올라올 만큼 그 경사가 만만치가 않았다. 두 번째 올 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가봅시다.' 혼자 중얼거리며,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올랐다. 입구에 커다랗게 三密寺 간판이 눈에 띄었다. 이 사원의 이름은 왜 삼밀사일까 생각이 들었다.

삼밀은 부처와 같아지는 수행

현교에서는 중생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활동을 삼업(三業)이라고 하지만, 밀교에서는 중생의 삼업이 부처와 같아지는 수행을 한다고 하여, 업(業)이라는 말 대신에 밀(密)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삼밀(三密)이라 한다.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짓을 신밀(身密), 입으로 행하는 짓을 구밀(口密), 마음으로 행하는 짓을 의밀(意密)이라고 한다.

삼밀사와 인연을 맺는 동시에 부처의 세계로 들어왔음을 알아챘다. 삼밀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저 아래 큰 길부터 신구의를 총동원해 '짓'을 해야 쉽게 오

를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님과 밀교의 상징 원상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고개가 향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자애로운 모습으로 어서 오라고 반기신다. 삼밀사 관세음보살님은 화강암으로 높이 6미터로 조성된 입상으로, 지난 2015년 4월에 불교총지중에서는 진주 화엄사에 이어 이곳에 두 번째로 모셔졌다. 관세음보살 입상 주변으로는 잡초 하나 없이 무성한 꽃과 나무가 만개하여, 잘 정돈된 대저택의 정원 같은 느낌을 주었다. 삼밀사 주교님과 교도들의 성정이 그대로 묻어있는 듯했다. 공손히 합장 후 서원당을 향해 가려면 정면에 원상이 보인다. 삼밀사 원상은 총지종의 교의와 종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밀교의 상징이자 법신비로자나를 뜻하며, 사원의 도량과 건축물을 상징한다.

서원당에 오르는 계단은 흡사 만다라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계단 벽마다 걸려있는 액자 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누어 계셨다.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다보면 자

연스럽게 3층에 조성된 서원당에 오르게 된다.

자성일이라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개인 불공 중에 계셨다. 조용히 앉으려 했으나 "어서 오세요." 맞이주시는 교도님들 때문에 깜짝 놀랐다. 원래 알고 지냈던 분들인 줄 알았다. "저를 아시나요?" 살짝 농을 던졌더니, 모두 깔깔 웃으신다. 삼밀사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교도님들의 친화력은 눈빛만 봐도 통하는 한 가족 그대로였다. "저는 여기 나온 지 34년 되었어요. 선배 보살들이 나를 제도를 해서 오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안 살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불공을 했어요. 불공을 하다 보니 불공한 만큼 또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우규연 보살님은 선뜻 불공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씀해주셨다.

웃음과 신심 넘치는 자성일 불공

자성일 법회는 여법하게 열렸다. 기로 스승님들까지 오셔서 삼밀사 교도들의 신심에 한껏 불심을 불러 일으켜 주셨다. 공양실에서는 이미 몇 분의 교도님

들이 점심공양을 준비 중이었다.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맞춰가며 바빠 움직이셨다. "주교님 모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관불행사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처처부처'라고 하잖아요. 사원에서 불공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보살님을 하고 두루 다니며, 화합하는 시간도 만들고 있지요." 삼밀사 신정회 김화자 회장님은 삼밀사에 많은 교도들이 올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삼밀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이 밀교의 수행법이자, 수행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면 불교총지중에서 가장 밀교다운 사원 이름을 가진 곳이 삼밀사가 아닌가 싶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밀법도량으로서의 품모와 자세를 갖고 있으니 말이다. '희망과 만남의 장소'가 더 이상 '영도다리'가 아니라 삼밀사로 기억되는 새 역사가 이뤄지길 서원해 본다.

<박재원 기자=부산 삼밀사>



신행담



삼밀사 전현자 교도

'무시'를 이겨낸 육자진언의 힘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는 부모야 자기 지식 귀하지 않겠나 마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평불만 없이 또, 늘 넉넉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원망 없이 깨끗하게 소신껏 아주 잘 자라준 착한 아들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십 년 여 전의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아들 녀석이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성인이 되어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맞이한 첫 번째 고배였습니다. 부모의 어려운 형편을 아는 아들은 나름대로 재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연히 영도다리를 건너다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축 처진 어깨가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용기를 내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해 만 더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일하면서 몸은 늘 지쳐있었고, 이런 소리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하러 나가는 아들을 응원하는 방법이 제게는 불공 밖에 없었습니다. 일 년간 아들과 저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부산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사 람들은 그때 또 제게 격려 대신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대학은 어떻게 보낼 거며 부산대 나와서 뭐하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육자진언을 염송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부산대를 나와 석사까지 마치고, 당당하게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돌아와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하나 자기 알길 가도록 부모로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못 믿고, 삼밀사와 인연이 없었다면 이 힘들고 험난한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제 자신의 수행 과정이지 않았나 생각해 듭니다. 이 공덕으로 자식도 잘되고, 마음 복잡했던 시간을 긍정과 희망의 시간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분들은 '육마니반메움'을 꼭 소리 내어 염송해 보기 바랍니다.

지상설법

경애 받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삼밀사 주교 묘홍 전수

경애 받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공덕이란 장차 좋은 과보를 얻기 위해 쌓는 선행을 말합니다.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게 하는 월천 공덕, 가난한 사람에게 옷과 음식을 주는 구난 공덕,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활인 공덕 등, 선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베푸는 모든 행위와 마음 씀씀이가 모두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에 귀의하여 깨닫고자 수행하는 것은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못하면 지은 복을 쏟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상과 야만이 있어 재물, 권력, 학식 등으로 경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나라 시대에 양무제라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불심천자'라고 불리는 열성적인 불교신자였습니다. 양무제는 신의 대접을 받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게 달마대사는 아무 공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그의 선행에 공덕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아상으로 복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는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진리에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복을 지어놓고 공덕을 구하고 보상을

라지 않아도,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이 자까지 쳐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 가치는 명예, 재물, 지위, 권력 등이지만, 이 법계의 가치는 자비만 있을 뿐입니다. 중생계에는 재물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외모가 잘 난 사람에게 더 잘 대하고 가난하거나 명예가 낮거나 인물이 못나면 차별하기도 하지만, 부처님 법계에서는 재물, 명예, 인물이 잘났다고 잘 봐주고 못났다고 못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행을 보고 그 사람의 행이 올바르게 자비한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중생계와 법계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법이 다릅니다.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존경받고 경애를 받으려면 법에 따라 바른 행을 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성도합니다.

마음 안의 보물창고를 열어 진정한 공덕법에 따라 바른 행을 하고, 자비실천 해야

지닌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달마대사를 만나 공덕에 대해 물었습니다. 양무제는 자신이 즉위한 이후 수많은 절을 짓고 경전을 출판하는 등 불교 발전을 위해 후원하였습니다. 양무제는 자신의 행함에 대해 어떤 공덕이 있는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공덕을 묻는 양무제에

바라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은 양무제의 마음이고, 중생의 마음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달마대사의 마음이고, 깨달은 이의 마음입니다. 큰 보시를 했더라도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은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선행을 해도 이 우주 법계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바

부처님의 자식교육 밀행제일 라훌라(2) 부처님도 직접 자식교육 대신, 사리푸트라 통해 교육

화령 정사(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장)

부처님께서도 자식교육은 몸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출가승단이라지만 자식을 늘 옆에 두고 있는 것도 남들에게는 보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야 아들이라고 더 귀여워하거나 더 감싸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부자(父子)가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구족계를 받기 전, 그러니까 사미로 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라훌라를 직접 가르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리푸트라(사리불)를 스승으로 삼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유분방하던 어린 라훌라가 부친인 석가모니 부처님께 단단히 훈계를 받고부터는 훨씬 철이 들고 의젓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지혜제일로 일컬어지던 사리푸트라에게 지도를 받으니 일취월장 수행의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리푸트라가 고요히 앉아 선정에 들면 라훌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앉아서 정진했으며 사리푸트라가 설법을 하러 갈 때도 라훌라는 꼭 따라가서 들었습니다. 결식을 할 때도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승단에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칭찬했으며 사리푸트라를 훌륭한 스승으로 더욱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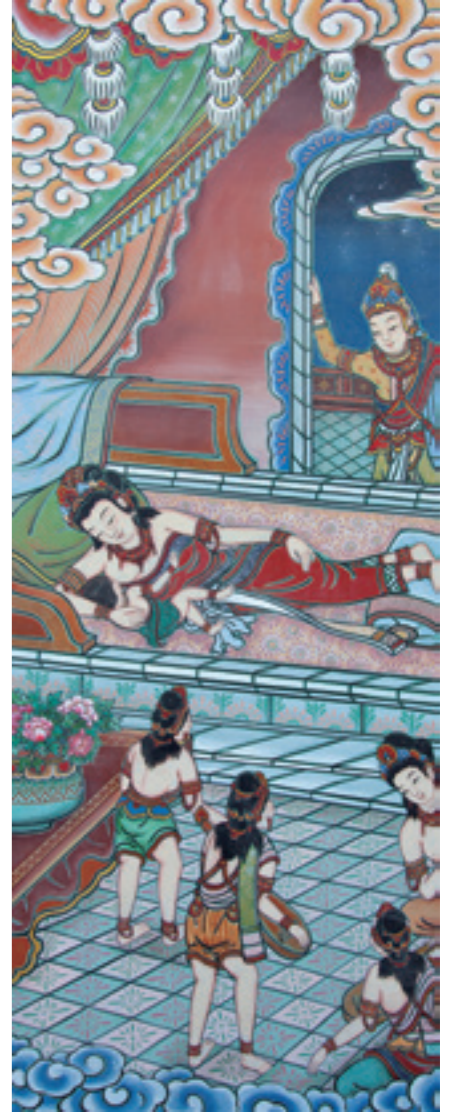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도 자식교육은 몸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출가승단이라지만 자식을 늘 옆에 두고 있는 것도 남들에게는 보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야 아들이라고 더 귀여워하거나 더 감싸고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부자(父子)가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말 많은 사람들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흠집거리를 찾으려 했을 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도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시어 사리푸트라를 스승으로 삼아 그 밑에서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혜제일인 사리푸트라가 몸소 가르치니 철없던 어린 라훌라도 많은 깨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재벌가에서는 자식 교육을 한답시고 자기 회사의 현장에 투입하여 고속승

진을 시키면서 감질만 배우게 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자기 자식을 잘 키우려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다른 회사에 취직시켜 밀바닥부터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되었다 싶을 때 회사를 물려주던지 해야 하는데 그저 자정(慈情)에 눈이 멀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 재벌 자식들이 못된 버릇만 배워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식교육을 사리푸트라에게 맡긴 것은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도 어린 라훌라를 떨어져 지켜보며 염려를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자

장소 구애없이 어느 곳에서도나 수행정진 훌륭한 훈육으로 부처님의 십대 제자로

식이라고 탈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 라훌라는 사미로서 승원의 여러 가지 잡일, 예를 들면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었다 봅니다. 그래서 숙소에 늦게 갔더니 어떤 비구가 라훌라의 옷과 발우를 밖에 내어 놓고 라훌라의 방을 차지하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단에는 각자의 처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남의 방을 차지하고 잔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아마 그 비구도 먼 곳에서 와서 방사가 바어 있으니 하룻밤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미가 비구와 함께 잘 수는 없는 것이 그 때의 법도였기 때문에 라훌라는

한 마리가 변소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라훌라는 선정에 들어 있었는데 잘못하여 독사에게 물리면 생명을 잃게 되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매마침 선정삼매에 들어 라훌라의 동정을 살펴보시던 부처님께서 이 위험한 장면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급히 변소로 달려가셨습니다. 기침소리를 내었더니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라훌라의 이름을 불렀더니 안에서 라훌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급히 나오라고 하셨습니.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라훌라가 급히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부처님께서 비가 오는 중에도 변소에까지 와서 자기를 찾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라훌라의



손을 잡고 나오시면서 라훌라가 변소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던 연유를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유를 다 듣고 나서더니 라훌라의 손을 잡고 라훌라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라훌라는 독사에 대한 것은 알지도 못했지만 비가 오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가게 된 것만으로도 안심이고 기뻐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의 방 앞에 까지 데리고 가서 비구와 함께 지내도 좋다고 허락 하셨습니다. 라훌라가 아직 구족계는 받지 않았지만 출가한지도 오래되었고 곧 구족계를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훌라의 방을 차지하고 있던 비구로 하여금 라훌라를 잘 지도하고 돌보아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가 설법을 하기 위해 먼 곳을 다니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라훌라가 항상 따라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장면이 세속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자기 아들을 그런 곳에 내몬 사람에게 엄청난

욕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 방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도 방을 차지했던 사람에게 욕을 퍼부어도 안쓰러웠고 도리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라훌라를 가르치고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지 않고 라훌라를 원래의 숙소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식이라고 남들보다 더 특혜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미라도 이런 경우에 처하고 있었으면 부처님께서도 똑 같은 자비를 베풀어 돌보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과잉보호하여 도리어 망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파할 때쯤 학교 근처에 가보면 아이들을 자가용으로 픽업해 가려고 어머니들이 골목에 줄줄이 차를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스쿨버스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러 바보짓을 하여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와 같이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같이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데도 무슨 특권층이라도 되는 듯이 자가용 픽업을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잘못된 관념을 길러 줄 뿐 만 아니라 본인의 시간 낭비에다가 학교 앞의 주차난 유발은 물론이고 연료 낭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남편에게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자기가 애 때문에 얼마나 바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지를 앞의 경우에서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훌라 존자는 이런 훌륭한 훈육 덕분에 부처님의 십대 제자로서 당당하게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벽공사 교도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취급 품목

- ▶ 방수공사전문업체
- ▶ 인테리어 집칠
- ▶ 공사청부
- ▶ 각종페인트 도·소매
- ▶ 기와칠 벽돌방수

SAMHWA 삼화 페인트

NOROO

대표 김치승 주소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92-261 전화 02) 873-9600 / 02) 877-3610 팩스 02) 873-4113 야간 02) 873-1892 핸드폰 011-283-3610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28)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③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명심(明心)

명심(明心)이란 무엇인가? 밝은 마음이다. 밝음(明)은 지혜를 뜻한다. 따라서 명심은 지혜를 지닌 마음이다. 수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암심(暗心)을 버리고 명심(明心)을 얻는 데 있다. 그러한 과정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 부르고, 그러한 상태와 경지를 해탈·열반이라 한다. 즉 깨달음이나 지혜의 증득을 의미한다. 암심(暗心)의 반대어가 곧 명심(明心)이다. 암심은 지난 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혜가 없는 어두운 마음이다. 지혜를 불교에서는 반야(般若, prajñā)나 명(明, vidyā)이라고 한다. 반야(prajñā)는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아는 것이고, 비드야(vidyā)는 제법의 존재법칙성을 아는 것이다. 즉 연기의 진리를 아는 것이 명(明)이다. 그 진리는 의심할 바가 없고 틀림없는

법이다. 『대일경소』에서 말하기를, '무엇이 밝은 마음(明心)인가? 의심할 것 없는 법에서 의심 없이 닦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틀림없고 의심할 바 없는 법인(法印)의 법에서 그가 듣는 대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밝은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이 있어서 도(道)를 장애하는 마음이 있다. 문득 중혜(中慧)에 처하는 것이 장애를 다스리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즉 중도에 머무는 것이 지혜 있는 마음이고 도에 이르는 삶이다. 중도적인 삶이 암심(暗心)을 버리는 것이며 명심(明心)을 얻는 길이다. 중도는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며 양 극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양 극단을 섭수하는 것을 뜻한다.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를 받아들이고 거둬들이는 마음이다. 따라서 중도(中道)는 정도(正道)이

며 자비심(慈悲心)이다. 즉 이타적인 삶이 중도이며 정도이다.

적취심(積聚心)

중생의 좋지 않은 마음 가운데 하나라고 집되는 마음을 적취심(積聚心)이라 한다. 『대일경소』에서 이르기를, '쌓아 모으는 것을 적취심이라 한다. 무엇을 쌓아 놓는다는 말인가? 무량한 것을 하나라고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즉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운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자기 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고집부리는 것을 아집(我執)이 아주 세다고 하는데, 법에 대해 고집을 부리는 것을 법집(法執)이라 한다. 자기 의견이나 주장이 강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즉 적취심이란 한 가지 법에 빠져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하기

곤란하고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적취심을 『대일경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이 사람은 한 가지 것에 신해(信解)를 일으키고 나서 다시 여러 가지 다른 법을 들을지라도 모두 하나로 해버린다. 또한 삼매 하나를 학습하여 얻고 나서는 다른 경의 가르침과 무량한 법문을 차별한다'고 하였다. 즉,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떠나서는 다른 법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와서는 그것이 제일이라고 하고, 또 무엇을 듣고 와서는 그것이 최고라고 상(相)을 내는 것이다. 이는 믿음과 실천이 얽으며 꼬이지 못한 탓이다. 자기 공부가 더욱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주장이 강하여 다른 사람과 항상 언쟁을 일삼는다. 싸우는 마음을 투심(鬪心)이라 한다.

투심(鬪心)

투심(鬪心)은 싸우는 마음이다. 양의 경우처럼 적취심(積聚心)이 강하여 다른 사람과 옳고 그름을 논하며 싸우는 마음이 투심이다. 『대일경소』에서 투심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무엇을 싸우는 마음이라 하는가?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성품을 삼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다른 이가 설하는 가르침을 듣고서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즐겨서 '이 뜻은 이리하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투심으로 인하여 말이 많고 시끄러워 항상 공격적이며 자기 우월이 강하여 아상(我相)이 가득하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이치에 합당할지라도 온갖 억적으로 단점을 드러내고 트집을 잡아 결국 잘못으로 떨어뜨린다. 설령 다

른 이가 와서 물을 때에도 그 단점을 지적하여 질문을 어그러뜨린다.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자기에게 투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투심을 버리기 위하여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시비(是非)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청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며, 존중과 배려는 자비의 또 다른 표현이다. 경청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은 이타행(利他行)에서 비롯된다. 이타는 자비를 근(根)으로 하고, 자비 또한 이타를 바탕으로 한다.

적취심과 투심은 자비심을 길렀을 때 여월 수 있다. 자비심은 이타행에서 일어나고, 이타행을 통해서 자비심이 더욱 증장된다. 명심(明心)은 불자가 닦아야 할 마음이며, 적취심과 투심은 중생이 버려야 할 마음이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초빙교수



광명차제

구경차제의 광명차제(光明次第)는 광명법신을 성취하는 수행이다. 『금강만단프라』에서는 광명차제를 낙현각차제(樂現覺次第)라고 명명한다. 데바의 낙현각차제 주석에는 광명에 대해 "광명은 일체공의 자성이다."라고 주석하였다. 광명차제와 친숙한 것은 한국불교에도 잘 알려진 광명진언이다. 진언을 풀이하면, '아모가 바이로짜나'라고 설한 것은 '불공(不空)의 변조광명(遍照光明)이여!'라는 뜻으로 공성의 광명으로부터 비로자나법신의 성취를 촉구한다. 이어지는 '마하무드라'는 '대인(大

인)'으로 번역되며, 정각자의 상으로서 법신의 성취를 가리킨다. 광명진언은 사자와 생자 모두에게 통용되는 진언이다. 사자는 법신을 성취하고 생자는 삶이 곧 열반의 경계이며 법신의 몸이다. 후기밀교의 구경차제는 이에 대한 기술적 진화라고 말할 수 있다. 구경차제는 생기차제로부터 출발해서 금강염송차제, 심청정차제를 순서적으로 수습하는데, 이는 순서적으로 금강신, 금강어, 금강심의 수습에 배대된다. 심청정차제에서 유가자는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에 대해 공, 극공, 대

공으로 대치되는 공성을 수습해왔다. 『지혜금강집단프라』에서는 "온과 계와 처 등의 궁극(邊際)은 공성이다. 이 삼공(三空)의 궁극은 광명이다."라고 하였다. 광명차제는 심식의 분별을 제거한 돈오의 경계이자 절대공성을 현증하

를 초월한 것으로 태양이 아직 떠오르지 않은 이 찰나를 궁극의 경계라고 설한다."라고 하였다.

인류의 고대종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지역분포가 가장 넓은 것은 태양신앙일 것이다. 만물을 키우고 천체를 주

과 정도신앙의 무량광에 보이는 광명의 의미는 석존이 설하신 연기의 지혜에서 그 시원을 둔다.

광명차제의 실제수행은 광명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차제』에는 광명을 현증의 방법에 돈관(頓觀, pindāgraha)

광명차제의 돈관은 선수행의 돈오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선사들이 방과 할 때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생각의 습관에 갇혀 있는 무명의 상속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방과 할의 활용과 정각자의 삼신을 성취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밀교의 가장 큰 특징은 곧 유상유가(有相瑜伽)이다. 상(相)을 빌려 무상(無相)의 공성(空性)에 도달하는 교육방식은 인간의 심식을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삼성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탁월한 유가행의 이론에서 비롯된다. 분별을 통해 무분별에 이르고 소연상에 의지해 무연(無緣)의 진리에 도달하는 수행은 천여 년에 이르는 인도 밀교의 지혜와 경험의 산물이다.

명(vidya), 무명의 어두움을 대치하는 것은 지혜의 광명 밀교는 상(相)을 빌려 무상(無相)의 공성(空性)에 도달

는 찰나이다. 이 깨달음의 경계를 『오차제』에서 '진실의 경계(實際 bhūta-koti)'라고 이룸하며, 석가모니붓다가 새벽에 성도하신 장면과 동일시한다. 『오차제』에서는, "이것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니다. 일체의 자성을 떠난 이 정각은 찰나의 경계라고 최승의 아사리는 설한다. 그 중간의 변제는 멀하지 않으며, 암흑이 모였지만 무여(無餘)이며, 얇은 자리에서 일체

재하는 태양의 권위는 점차 관념상의 절대자로 진화하지만 고등종교에 끼치는 영향은 여전히 적지 않다. 석가모니붓다는 무명의 소멸을 설하였다. 초기 경전에서 붓다의 깨달음을 명(vidya)이라 설한 장면을 볼 수 있다. 무명의 어두움을 대치하는 것은 지혜의 광명이다. 그 지혜는 오온을 자아로 오인하는 아집과 외경의 실체를 부정하는 연기의 지혜이다. 대승불교시대의 법신광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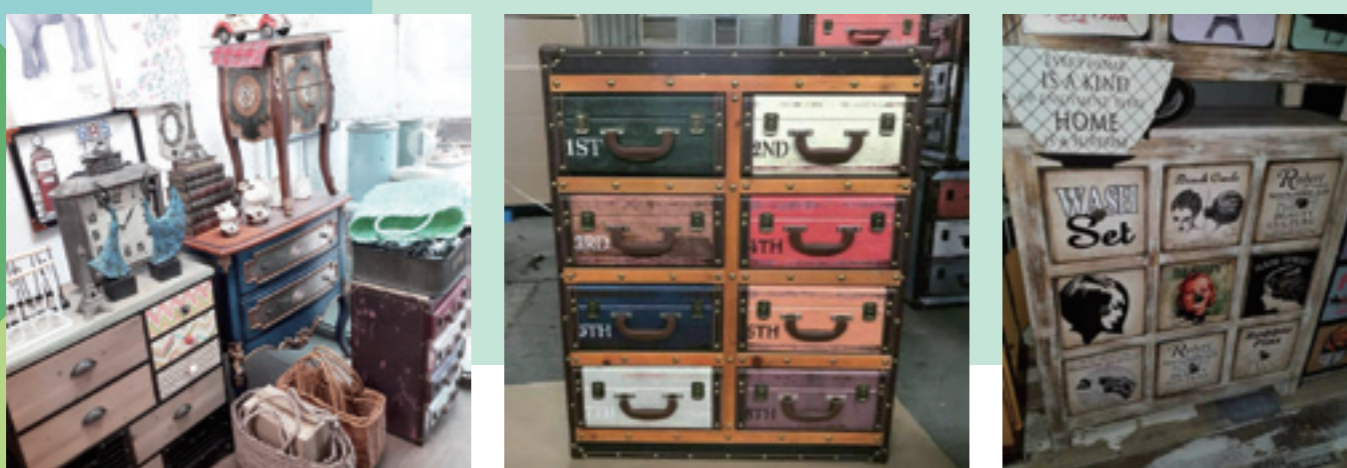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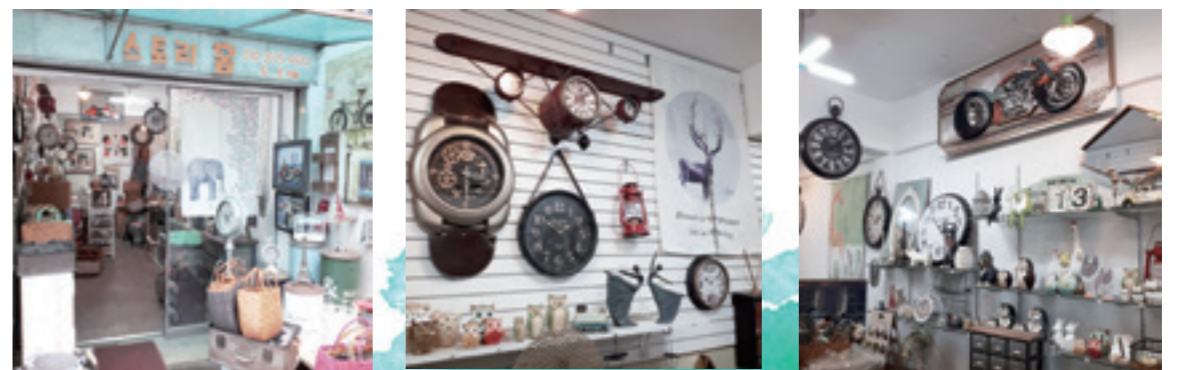
과 점관(漸觀, anubhedha)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오차제』에는 돈관에 대해, "머리에서 발끝, 가슴에 이르기까지 찰나에 진실의 경계를 성취한다"라고 하였고, 점관에 대해서는, "호흡의 풍(風)이 거울에 융합하는 것과 같이, 유가자는 바른 진실제에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든다. 행주좌와와 먹거나, 웃을 때, 이 선정의 유가에 진실을 아는 자는 항상 머문다."라고 하였다.

총기정보 / 워드마크
구독문의 | 총기정보
02-552-1080~3

성화사 교도

스토리홈

인테리어 소품 · 소가구 · 직수입 판매 (도소매)
TEL | 010-3075-4652



네이버 쇼핑몰 운영
https://smartstore.naver.com/storyhome8

인테리어 소품, 빈티지 소품 파는 청년

종합 동해중 소식

불교어머니회 봄 산사 순례

순천 선암사, 송광사, 불일암 돌며 기도와 힐링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갖는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회장:임화정, 총무:권윤희)의 산사순례는 지난 5월 25일 이른 더위로 새벽부터 내리 쩌는 따가운 햇볕 속에 출발을 했다. 순천 선암사, 송광사 그리고 불일암을 향해. 이번 순례는 어머니회와 탁상달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동해사 주교 법선 정사와 자성 전수 등 총 37명이 동행했다. 대형버스 안은 어머니회에서 손수 준비한 간식과 과일 음료가 이미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었다. 새벽부터 준비하신 분들의 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밀리지 않는 도로를 두어 시간 달리고 선암사에 도착했다. 조계산 자락의 선암사는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1천 2백여 년 역사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돌장승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선교(보물 400호)가 나타났다. 어머니회 회원들은

삼삼오오 수학여행을 온 듯 사진을 찍었다. 그사이 몇 회원은 부지런히 걸어 대웅전으로 올랐다. 작심(?)이라도 하고 온 듯 108 정진을 시작했다. "108배를 열심히 하시던데, 무슨 기도 하셨어요?" "아들이 3학년인데 사춘기가 와서..." 말끝을 못 맺고 왈칵 눈물을 쏟는 김지현 씨. 간절한 엄마의 이 마음을 우리 아들은 알까? 엄마는 송광사에서 108배를 이어갔다. 송광사는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의 하나로 훌륭한 스님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하여, 승보사찰이다. 불교어머니회가 송광사에 오게 된 인연으로 자식들 역시 이 사회에 훌륭한 동량으로 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다. "자, 이제 10분 만 올라가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법정스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불일암입니다." 인솔자인 동

해중학교 김진화 선생님의 말에 모두 가벼이 길을 올랐다. 그러나 고바우 언덕 30분을 올라서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다. 땀 흘리는 회원들은 모두 '하하, 호호' 속았다며 즐거워했다. 다들 그저 맑고 향기로운다.

"저는 1학년 4반 노길준 엄마입니다.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동해중학교 와서 아들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립니다. 아들 하나 잘 낳았습니다."



"유락여중 1학년 학부모입니다. 지인이 있어서 왔는데, 5학년 동생이 있습니다. 동해중학교에 꼭 들어와서, 저도 불교어머니 모임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1학년 1반 허명재 엄마입니다. 함께하는 인연에 감사함을 크게 느낍니다. 새벽부터 맛있는 간식 준비하시고, 중간 중간에 안부 물어봐 주시고 배려해주신 회장님과 총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학년 2반 배성민 엄마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올까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면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3학년 1반 김준서 엄마입니다. 모임을 자주 못 나왔는데, 여기 와서 거의 7,8년 만에 2학년 엄마인 친구를 만나 너무 좋았습니다. 동생아 반갑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다시 부산으로 향하는 시간이 되었다. 다시 버스에 탑승한 회원들은 오늘 하루의 추억을 떠나없이 나눴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깜짝 행운권 추첨을 준비했는데, 오늘 108배를 한 회원들이 뽑히는 바람에 모두 놀랐다. 탁상달 교장은 동해중학교 안에 있는 사찰 동해사를 소개하며, "누구나 편안하게 묵상도 하고, 소원을 빌고, 자기 심신의 순화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며 동해사가 좋은 인연 맺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어머니회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2시에 동해사(주교: 법선정사)에서 법회를 연다.

법정스님의 말씀으로 매듭짓고 싶다.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는 연습을 해야 한다." 멀리 가지 마시고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가 가 보시길,

<순천=박재원 기자>



부처님이 진정 내게 오시려면?

성대한 봉축 행사만 치를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을 분별·차별 없이 수용해야

불기 2563년을 맞은 올해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마음껏 자비를! 세상사랑 평화!'이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이타행을 통해 세상을 정토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주변의 이웃까지도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법을 알려주셨다. 자리아타행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대중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길 발원했다. 하지만 현재 불자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불자들에게 있어 '부처님오신날'이아말로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을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부처님 모셔 놓은 불단 앞에 등줄을 치고, 색색으로 한지 연등을 달아 앞전구 넣고는 전깃불을 밝힌 뒤 그 아래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내게도 어릴 때부터 나이 따라 변해가던 소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바닥없는 욕심도 있었다. 만나고 싶은 이도 있었고, 오르고 싶은 곳도, 또한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과 번뇌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오셨다던 그님은 존안을 만발치서 뵈기만 해도, 손만 한번 잡아줘도 내 허허로움 가득 채워지는 불세출의 존재였을까? 아니다. 우리에게 오셨다던 우리 부처님은 누군가에게 마음 사 코끼리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음탕한 지도자라 모함 당했고, 늙은 몸 누일 곳 없어 사라수 아래서 열반에 드신, 몸 아프고, 배고프고, 목마른 분이였다. 고행의 바다인 이 사바세계서 80평생 사신 분이시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과정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신 분이시다.

마음공부를 통해 진실을 깨달으면, 삶은 곧장 아무 일 없는 제법 실상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대로의 삶을 하더라도 바꾸지 않은 채 곧장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 이미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매번 잊지 않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것이다. 그러나 경전을 아무리 외우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자신에게는 한푼도 없으면서 밤낮으로 남의 돈만 탐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큰 도는 자연스러워 애쓸 것이 없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은 하나의 형식적인 틀일 뿐이다. 분별서 벗어나다면 지금 이 자체로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의 실상은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바로 자신의 것대로 만들어낸 온갖 분별심서 벗어나 아무런 문제 없는 생생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닌, 지금 이대로 돌아 아닌 하나의 실상,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는 진리에 눈뜨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지금 그 모든 것의 원천인 이 자리에 그저 존재하는 것뿐이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분의 부처님 삶을 그저 온전히 받아들여, 시시비비 분별없이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도 부처님이 진정으로 오시는 날이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한 번 자리 잡은 부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머물며, 우리를 지극한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내년 '부처님오신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 같다. <김주일=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교사·학생 하나 되는 제 5회 '동해 어울 한마당' 개최

사제 간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등 화합의 시간, 학부모도 참여



지난 5월 1일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 과 단결심 고취 그리고 애교심과 강인한 정신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를 양성하고, 협동 신력 배양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

하고, 사제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교사 학생 '동해 어울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동해중학교 전 교사 및 교직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체육행사로 이루어졌으며, 사제간 줄다리기, 제기차기, 농구 자유투, 단체 줄넘기, 이벤트 달리기, 오레 달리기, 사제 동행 축구경기, 이어달리기를 하였으며, 축하 무대로 응원단 공연과 지난 영어팝송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팀의 노래 공연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박경숙 학부모회장은 "학생들이 질서 정연하고 선생님들과 하나 되는 이벤트 달리기와 사제동행 축구시합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밝히며, 많은 준비와 성원해 준 학교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로 이루어진 동해 어울 한마당 체육대회에서 탁상달 교장은 "동해중학교의 소중한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더욱 더 내실 있는 행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 방침을 전했다.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4월 21일 ~ 5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 7668610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12 columns listing donors and amounts. Columns include: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Donor Name, Amount.

절기이야기

사슴이 뿔을 갈고, 매미가 운다는 '하지'

정각사 남해 정사



하지는 24절기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양력으로는 6월 22일 무렵이다. 천문학적으로는 일년 중 태양의 적위가 가장 커지는 시기이다.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아져 동지에 가장 길었던 밤 시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여 이날 가장 짧아지는 반면, 낮 시간은 일년 중 가장 길어져 무려 14시간 35분이나 된다.

「고려사」에 따르면 5월 중기인 하지 기간 15일을 5일씩 끊어 3후로 나누었는데, 초후에는 사슴이 뿔을 갈고, 차후에는 매미가 울기 시작하며, 말후에는 반하의 알

이 생긴다고 했다. 또한 「문종실록 7권」에 따르면 문종 1년 5월 15일에 “서윤관에 명하여, 간의대 및 혜정교, 정선방의 양부의에서 해의 그림자를 측량하게 하였다. 하지이기 때문이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하지는 일년 중 농사일이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이다. 하지 즈음은 모심기가 마무리 되는 시기이고, 논이 마르지 않게 물을 잘 대줘야 모가 잘 자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가 지나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밭을 물꼬에 담고 살만큼 바빠진다'는 뜻의 속담까지 생겼다. 그 외에도 메밀 파종, 누에치기, 감자 수확, 고추밭매기, 마늘 수확 및 건조, 보리 수확 및 타작, 모내기, 그루갈이용 늦콩 심기, 대마 수확, 병충해 방제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철종 14년 5월 10일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도 한줄기 빗발이 아직도 더디니, 농사일을 생각하면 목마른 안타까움이 극도에 달하였다.

날을 가리지 말고 기우제를 설행하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다. 농촌에서는 하지 가 지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예부터 3~4년에 한 번씩 한재를 당하였으므로 조정과 민간을 막론하고 기우제가 성행했다.

하지는 감자를 먹는 날이다. 감자수확 시기가 겹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뜨거워져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여름에 기력을 회복시켜 주고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높여준다. 하지에 먹는 음식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마늘이다. 하지 이전에 수확되는 마늘은 연하기 때문에 장아찌를 담가먹었다. 하지쯤에 담가놓은 마늘장아찌의 알리신 성분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와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을 갖고 있다.

영국에서는 하지에 솔즈베리평원 스톤헨지에서 일출 또는 일몰을 보며 축하를 하고, 스웨덴에서는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는 기동 '메이폴'과 함께 하지를 기념하는 축제를 벌인다.

행복한 삶의 열쇠 찾기

동의대학교 신경택 교수

지난주에 아버지의 49재를 잘 마무리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아버지의 죽음, 장례식, 그리고 49재를 실행하면서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아이러니하게 '슬픔'보다 '감사함'이었다.

막제 때 아버지를 위한 추도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날의 추억을 꺼내면서 가장 먼저 든 감정도 '감사함'이었다. 아버지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다만, 감사함 대신 서운함, 미움에 마음이 맞춰져 감사함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장례식 때부터 함께한 가족들,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 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와 주위의 소중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지는 순간 행복감이 느껴졌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을 연구하는 긍정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행복해지는 방법으로는 감사하기, 용서하기, 건설적 행동하기(친절하기, 자기개발하기), 자신의 감정 찾기, 의미있는 행동하기, 긍정적 삶, 자기주장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복해지는 방법을 대학생 우울증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약물치료, 전통적 심리치료보다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컸으며, 재발율도 낮았다. 자신의 감정을 찾고,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 우리는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 된 것으로는 건강,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종교, 여가, 봉사, 낙천성, 웃음, 물질적 요인 등이 있다. 즉, 행복은 멀리 있지도 않으면 그 방법도 특별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도 많고 행복할 일도 많다. 다만, 감사함과 행복함보다 후회, 미움, 실패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한국심리학회에서 제안한 행복해지는 10가지 방법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10가지 방법을 보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성향에 맞춰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 5가지 방법을 작성해보는 것도 행복에 가까이 가는 좋은 방법이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

BOOK 소리 붓이 가는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마음의 평온을 찾아서」

최해자
도서출판 운주사
15,000원

팔순을 넘긴 노 불자가 마음으로 그린 그림과 마음공부의 단상을 함께 엮었다. 불치병 환자라는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평온과 행복으로 바꿔놓은, 저자의 불교공부와 수행의 과정을 그림과 글에 고스란히 담았다.

그림이라고는 근처에도 가본적 없는 저자는 수술대 위에 올라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불현듯 연꽃이 그리고 싶어졌다고 했다.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퇴원을 하고, 그때의 그 간절함을 살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색깔이 드러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한 점 두 점 완성되어 가기 시작했고, 경전을 읽고,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 속에서 병으로 인한 고통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과 상실감을 잊으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가르침들을 곱씹어 한쪽 면에 글을 쓰고, 다른 한쪽에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배치하여, 눈도 마음도 평온하게 맑히는 책을 펴냈다.

시방토 정토 수면사

전윤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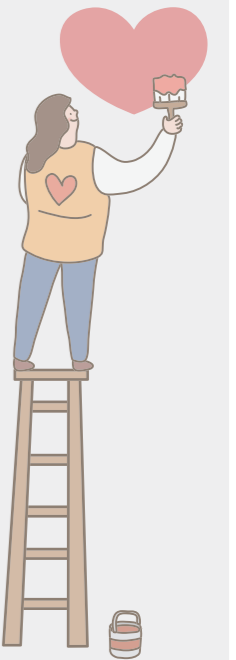
초과일 아침
절에 가지면 아내가 자고 있다
다른 식구들도 일 년에 한번은 가야 한다고
다그치던 아내가 자고 있다
엄마 깨워야?
아니 그냥 자게 하자
매일 출근하는 아내에게
오늘 하루 늦잠은 얼마나 아름다운 절이라
나는 베개와 이불을 다독거리
아내의 잠을 고인다
고른 숨결로 깊은 잠에 빠진 적멸보궁
초과일 아침 나는
안방에 법당을 세우고
연등 같은 아이들과
꿈꾸는 설법을 듣는다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1991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한국시인협회 젊은 시인상 수상. 시집 <천사들의 나라> <늦은 인사> <봄날의 서재> <순수의 시대>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섬에서 섬으로 바다백리길을 걷다> <편지 고양이, 조로> 등 다수

한국 심리학회 제안 행복해지는 10가지 방법

- 1.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라.**
맹목적으로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 2. 삶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느끼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 3. 사촌이 땅 사면 함께 웃어라.**
남이 행복해진다고 시기하지 말라,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 4.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 5.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해 진다.
- 6.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라.**
기쁨을 키울 수 있는 쉽고 확실한 방법은 표현하는 것이다.
- 7. 가족, 친구가 최우선이다.**
행복의 절대적 원천은 친구와 가족, 이들을 희생하며 추구할 가치는 없다.
- 8. 적극적으로 살아라.**
행복은 추구의 골과 같다. 수비만 해서 안되고 슈팅을 계속해야 한다.
- 9. 가능한 목표에 몰입하라.**
누구에게나 고유한 강점과 재능이 있다. 이를 살리는데 전념하라.
- 10.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라.**
행복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기쁨이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힘들면 힘들수록 웃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오늘 하루 웃음으로 시작하고 감사한 일을 찾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지사 교도

맛찬들 3.5
SINCE 2008
왕소금구이

맛찬들 3.5 노원점
왕소금구이

현대자동차 중공업사
상계초교사거리
노원역 1번출구
맛찬들 3.5 왕소금구이
LG전자 BEST SHOP

예약전화 02-938-7008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68-9 영업시간 11:00 - 01:00

사원은 달라도 우리는 일심동체

불기 2563년 돌아보는 '부처님오신날'

1
우리도 부처님 같이
성화사 어린이 보살 & 정각사 어린이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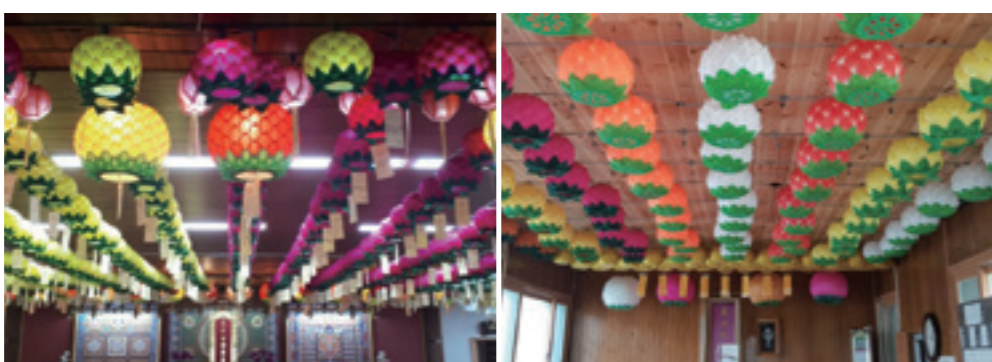
2
좋은 날도 식후경
말끔한 공양준비 벽룡사 & 법황사 바쁘다 차례차례



3
부처님 오신 축제
예술로 봉축하자 정각사 & 운천사는 다함께 차차차



4
연등 제일 우리 사원
만보사는 연등 자랑 중 & 등 다는 실력은 수계사



5
봉축의 꽃 육법공양
가족 모두 한자리에 총지사 & 일곱쌍 부부가 올린, 실지사



위 사진과 내용은 전국 통신원 여러분들이 보내준 수고로 편집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수인회, 어린이날 먹거리 장터 열어



수인사(주교:법일 정사) 수인회는 5월 4일 포항시가 환호공원 내 해맞이 광장에서 개최한 제26회 포항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수입금은 매주 자성일 무료급식과 겨울철 김장보내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인사=이귀선 통신원>

실지사 여심지, 효자·효부 표창 수여



실지사(주교:탁광 정사) 교도 여심지 보살님(홍정숙 님, 사진 오른쪽 세 번째)이 5월 20일, 2019 효자, 효부 및 선행자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의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와 가족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해온 관내 구민 4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심지 보살님의 자비보살행이 모든 교도님께도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실지사=김지은 통신원>

총지사 교도, 이사 축하 가정 불공



총지사(주교:원당 정사) 교도 성연주 보살님이 경기도 양평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5월 27일 원당 정사님과 묘심해전수님을 비롯한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이사를 축하하고,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서원하며 가정불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수 공양을 준비해주신 성연주 보살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총지사=최해선 통신원>

신정회 부산경남지회 새임원 선출



신정회 부산경남지회 새임원이 5월 7일 선출되었습니다. 전 부회장을 맡으셨던 정각사 류길자(사진 중앙) 전 부회장이 새로운 회장님으로, 부회장에 성화사 허태연 회장님과 자석사 이지은 회장님 그리고 총무에 정각사 조향선 교도님이 함께 수고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황윤희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산경남지회 발전에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각사=이상록 통신원>

정각사 산악회, 울산 삼리대숲 걷기



정각사(주교:도현 정사) 산악회는 안학수 회장님의 안내로 5월 21일 울산지역 명소를 관람하였습니다. 울산 대공원 장미원과 동물원을 돌아보고, 태화강 삼리대숲을 다녀왔습니다. 삼리대숲은 태화강을 따라 구 삼호교에서 태화루 아래 용금소까지 10리(약 4km)에 걸쳐 있습니다. 다른 사원에서도 한여름 관람을 나가신다면 도심 속 피서지로 삼리대숲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각사=한미옥 통신원>

총지스케치

김흥균 작가
총지사 교도



서울 사대문 안 법계궁 관성사

관성사 김병석 교도

건축시공 기술사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관성사 주교 및 교도 일동

부산 포교의 중심지 법성사

2019년 7월 완공예정

법성빌딩(가칭)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하철 1호선(부산역) 3분거리
- 부산항바다, 남항대교 조망
- 인근 관광명소 다수
- 인근 우수학군
(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
- 안전한 치안
(초량지구대1분거리)
- 편리한 생활권
(초량시장1분거리, 대형마트1분거리,
롯데백화점 지하철로 2정거장)
- 입주민전용 헬스장, 세탁실
- 프리미엄급 옵션 제공
한샘키친시스템
LG휘센스마트천장형에어컨
친환경동화자연마루시공
실크벽지
불박이장
LG공기정화시스템(전열교환기)
내진설계
- 옥상하늘정원

아파트 | 23세대 (2Type)
오피스텔 | 34호 (3Type)

법성빌딩

지번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422-2
도로명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59-1



문의 051-468-7164